

산림자원과 그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조영남

현시기 산림자원조성을 과학적으로 하는것은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다그쳐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산림자원에 대하여 잘 알고 그 조성사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가는것이다.

산림자원이란 산림토지와 거기서 자라고있는 림목자원을 비롯한 동식물자원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산림자원에는 키나무, 떨기나무, 풀류 등 식물원천과 동물 등이 속한다.

산림자원은 주로 산림토지와 림목축적을 합한것으로 본다.

산림토지는 료지면적중에서 거주지역, 농경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을 빼내고 산림식물이 자라고있거나 더 심을수 있는 모든 토지이며 림목축적은 모든 산림토지에서 자라고있는 나무의 량이다. 산림자원은 총산림면적과 림목축적 또는 정보당 축적으로 표시한다. 림목축적은 변화가 심하므로 산림면적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림자원을 세부류로 나누어 관리하고있다. 1부류산림자원에는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보호림과 특별보호림이, 2부류산림자원에는 고적보호림, 교통보호림, 수원함양림, 바람막이숲, 학술연구림 등 각종 보호림이, 3부류산림자원에는 경제림, 용재림, 씨받이숲 등 각종 산림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경영하는 산림이 속한다.

산림자원은 경영목적에 따라 경제림, 용재림, 보호림, 떨나무림 등으로 나누며 그의 발생경과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진 자연숲과 씨뿌리기, 나무심기, 접방법 등으로 조성한 심은숲 그리고 씨에서 자란 나무들로 이루어진 씨앗숲, 움에서 자란 나무들로 이루어진 움숲으로 나눈다.

산림자원은 숲을 이루고있는 나무종류에 따라 같은 종류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홀숲(소나무홀숲, 이깔나무홀숲 등)과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섞임숲(이깔나무-분비나무섞임숲, 소나무-참나무섞임숲 등)으로도 나눈다. 나무갯의 배치상태에 따라서는 나무갯이 한층으로 된 홀층숲과 두층이상으로 된 겹층숲으로 나눈다. 그리고 산림의 나이에 따라 한나이급(삼송류, 이깔나무, 굳은잎넓은잎나무씨앗숲에서는 20년, 나머지 바늘잎나무숲, 넓은잎나무숲들과 굳은잎넓은잎나무움숲에서는 10년, 떨기나무류의 숲에서는 5년, 참대림에서는 1년) 이내의 거의 같은 나이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같은나이숲과 한나이급 이상의 차이를 가진 나무들로 이루어진 다른나이숲으로 구분한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국토의 80%를 차지하며 목재자원도 다양하다. 북으로부터 남으로 가면서 아한대 바늘잎나무숲, 온대 바늘잎나무숲, 섞임숲, 아열대 사철푸른 넓은잎나무숲이 퍼져있으며 1 500여종의 나무들이 자라고있다. 또한 500여종의 특산식물과 100여종의 특수수종, 목재식물과 섬유식물을 비롯한 700여종의 경제식물이 자라고있다.

산림자원의 특성은 우선 그 지역적분포에서 일정한 지리적대성법칙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하여 그 분포한계가 지하자원처럼 제한되어있지 않다는데 있다.

지리적대성법칙이란 적도에서 양극방향으로 위도대에 따라 자연대들이 규칙적으로 바뀌는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대성의 법칙에는 높이에 따라 자연대가 띠모양으로 변하는 수직대성도 포함된다. 대성의 법칙이 나타나는 원인은 지구가 둥글기때문에 단위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기가 적도로부터 양극방향으로 가면서 달라지는데 있다.

산림자원은 생물체인것만큼 다른 지역으로 분포시켜 생활환경을 새롭게 마련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에서 식물자원의 인공적인 조성이 가능하다.

지리적대성의 기본요인은 기후적요인이다. 물자원, 토지자원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만 산림자원을 비롯한 식물자원처럼 그렇게 규정적인 관계에 놓여있지는 않다. 따라서 물자원, 토지자원과 달리 산림자원은 지리적대성법칙에 따라 분포된다. 즉 산림자원은 기후, 물, 토지조건에 따라 분포된다.

산림자원의 특성은 또한 부단히 재생되는 자원이라는데 있다.

산림자원은 일정한 한계내에서 자기의 량과 질을 자체로 보존하고 증식할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자원이다.

산림자원은 식물의 환경조건이 마련되는 한 자연계에서 부단히 증식되며 사람들이 리용해도 다시 보충된다.

산림자원은 알맞춤한 자연조건과 합리적인 경영관리의 조건에서 부단히 번식할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영원히 리용할수 있는것이다.

산림자원의 특성은 또한 조성기간이 길다는데 있다.

산림자원은 번식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리용될수 있으며 국토보호 및 미화적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된다. 산림자원이 경제적으로 리용될 때까지의 기간은 보통 1년 또는 그 이상이다.

산림자원의 이러한 특성을 옳게 인식하여야 그것을 지리적으로 구획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계획적으로 보호조성해나갈수 있다.

산림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성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은 그의 증식을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인 동시에 그 합리적리용을 위한 조건의 하나이다.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것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산림자원을 새롭게 늘이며 산림자원량(축적량)을 부단히 증대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산림자원조성의 기본요구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지대적특성에 알맞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는것이다. 그리고 경제림과 보호림, 풍치림을 밀접히 결합하여 조성하며 쓸모없는 나무들을 경제적쓸모가 많은 나무들로 바꾸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림조성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

들자체가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군중적 운동을 벌인다고 하여도 이 운동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할수 없다.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산림조성사업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모두가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하게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은 나라가 **김정일**애국주의로 들끓고 전체 인민의 심장이 **김정일**애국주의로 불타면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오르게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래를 사랑하고 국가 및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동맹조직들과 중학교,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서 청소년들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출판보도부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산림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한다.

산림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산림조성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 때 비로소 산림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신문과 잡지, 소리방송, 텔레비존을 통하여 산림조성과 관련한 당정책과 과학기술지식, 상식자료들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산림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학교별로 조림구역과 나무심기계획을 주고 봄, 가을나무심기철에는 누구나 다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 단위들에 대한 사회적분담을 바로 주고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한 요구이다. 매 단위들에 사회적분담을 바로 주고 책임제를 실시하는것은 기관,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게 하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조성하는 사업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대중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며 산림조성을 바로할수 있게 한다.

산림자원조성에서 책임제를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조림구역을 해당 단위로부터 가까운 지역들에 설정하는것과 함께 담당구역의 면적을 해당 단위의 능력에 맞게 정확히 규정해주는것이다.

특히 청년동맹조직들과 학교들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집단주의를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소년단조직들에서는 지난 기간 청년림, 소년단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서 나타난 우결함을 총화하고 이 운동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나무심기에서 일꾼들이 앞장에 서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인민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꾼들은 식수절에 나무를 몇그루 심는것으로 그치지 말고 봄, 가을 나무심기철에 계

속 앞장서서 인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인민들이 나무심기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성의껏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해나가는것이다.

산림조성사업은 그자체가 방대하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는것은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토지를 보호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산림조성사업은 국토건설총계획의 요구에 맞게 산림경영의 목적과 나무종류에 따르는 산림조성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바로세우고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조성의 목적은 목재를 비롯한 섬유, 종이, 기름, 산과일 등의 공업원료를 얻으며 큰물, 바람 등에 의한 자연재해를 막고 발전용수와 관개용수의 원천을 보장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국토를 보호하는데 있다.

산림조성사업은 적지적수원칙에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산림토지를 집약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자라며 경제적가치가 높은 나무들을 배게 심어 산림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조성은 경영목적에 따라 경제림조성, 용재림조성, 보호림조성, 풍치림조성, 땀나무림조성 등으로 나눈다. 경제림은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원료를 보장할수 있도록 조성하되 일반용재림 및 각종 보호림조성과 밀접히 결부하여 조성한다. 용재림은 건설에 필요한 용재를 비롯하여 동발나무, 철도침목, 배, 자동차, 가구 등의 생산에 필요한 용재를 많이 얻을수 있도록 조성한다. 보호림은 전력생산과 농작물의 수확을 높이며 자연재해로부터 마을, 농경지, 철길, 도로 등과 강하천을 잘 보호관리할수 있도록 조성한다. 보호림은 나무를 배게 심어 조성하며 보통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 큰나무와 작은나무종류들을 섞어 심는다. 풍치림은 료양소나 휴양소주변과 도시 또는 바다가 주변에 경치를 아름답게 하며 문화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바늘잎나무와 여러가지 넓은잎나무, 꽃나무 등을 심어 조성한다. 땀나무림은 협동농장들에 땀나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빨리 자라는 아카시아나무를 기본으로 하여 조성한다.

산림자원의 조성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산림조성사업과 산림개조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다.

산림조성사업과 산림개조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으로 유익한 나무수종을 선택하며 섞임숲을 형성하여 그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대적특성에 맞게 산림을 개조하며 여러가지 산림개조방법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야 한다. 나무를 베지 않고 개조하는 방법, 나무를 베고 개조하는 방법, 접에 의하여 개조하는 방법 등을 잘 배합하여 산림을 개조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자원의 특성과 그 조성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산림복구전투에 본격적으로 펼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